

03

친환경·친인간적 개발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다**성주군 소규모용수개발 사업 : 용암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경북 성주군에 들어서면 아삭아삭 달콤한 참외향이 코끝을 간질이는 것 같다. 노오란 참외가 사시사철 익어가는 고장 성주는 곳곳에 참외 비닐하우스가 물결처럼 펼쳐져 있다. 성주는 기상재해와 공해가 적고 일조량이 많을 뿐 아니라 배수가 잘 되는 미사질 토양으로 천혜의 참외 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4,682농가(성주군 내 전체 70%), 4,000ha(비닐하우스로는 6만 여동)에서 연간 14만 4,000t의 참외를 생산하고 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60~70%에 달하는 양이다. 참외생산으로 군 전체 연간 조수입이 3,200억 원에 이르며 농가당 평균 6,5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린다. 1940년대부터 60년 이상 축적된 재배기술과 친환경 농업이 품질보증 빨간 스티커로 대표되는 지금의 성주참외를 만들었다. 특히 톱밥발효퇴비, 키토산, 한방액비, 게르마늄, 꿀벌농업 등 친환경 농업에 의한 재배는 소비자 신뢰구축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당도 및 신선도, 형태, 빛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참외를 생산하기 위한 성주군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참외농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 과제! 물이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다. 적으면 아예 참외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번 소규모용수개발 사업으로 머지않아 벽진면 용암리, 봉학리도 물 걱정 없이 참외농사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외맛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성주군의 용수개발사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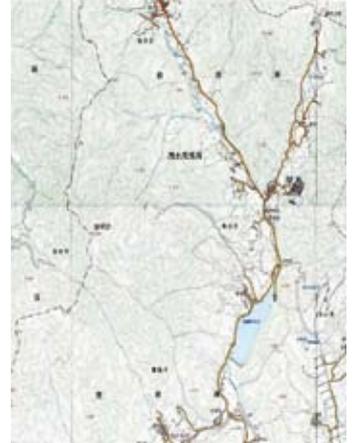
우리도 물 좀 주소!

참외는 90%가 수분이다. 여름철 시원한 참외 한 조각은 갈증을 멎게 하고 몸에 열을 내려주는 데 안성맞춤이다. 하여 참외농사에는 물 공급이 관건이다. 벼농사와 다르게 사시사철 물 공급이 원활해야 풍년 농사가 가능한 것이다. 성주군의 북서지역인 벽진면 용암리, 봉학리는 세장형 농경지로 생산량과 품질면에서 최대·최고의 참외시설농업지역이다. 그런데 지대가 높은 데다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아

참외농가는 상습적인 가뭄피해를 감안하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어려움이 많아 참외 농사를 접고 벼농사를 택하는 농가도 많았다. 농경지 하류부에 있는 지방하천의 지류인 소하천의 수원을 양수하여 급수하거나 농경지 주변 산간계곡에 산재된 재래식 취입보 등으로 물대기를 반복해 보았지만 늘 한계가 있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반복되는 가뭄피해를 해결해 주소! 이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같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성주군이 합심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뭄을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 및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 관개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목표아래 용암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저수지 1개소(총 저수량 265천 m^3), 이설도로 1,134m, 용수로 4,248m가 세워지는 이번 사업은 2009년 6월 착공,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4개년 동안 이루어진다. 현재(2011년 8월) 제당 및 여수토방수로를 시공 중이며 진도율 74%를 보이고 있다.



용암지구 위치도

입지선정의 탁월함

댐이나 교량 등 시설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입지선정이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어지는 토지보상 문제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보상을 바라는 경우는 그나마 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지만, 한 평생 그 땅을 일구어 온 어르신들이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크다. 땅은 그 분들에게 살아온 역사이자 삶 그 자체이다. 땅을 함부로 파헤치거나 개발하는 것은 내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심정을 적극 이해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은 기본적인 절차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도리라고 볼 수 있다.

성주군도 역시 그간의 여러 사업을 통해 많은 갈등을 경험해 온 터라, 이번 사업에서도 입지선정과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성주군의 선택은 남달랐다. 예상되는 모든 갈등요소를 고려하여 민가가 거의 없는 지역을 사업입지로 선정한 것



제당축조(내제), 제당축조(외제)



기존 잠수교(위) vs 새로운 진입교량(아래)

이다.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사업지연요소를 사전에 막자는 것이 성주군의 기본 방침이었다. 거기에 운도 따랐다. 선정된 지역의 땅 소유주가 몇 명 되지 않아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다.

현장사무소도 재활용하는 재치

사업지연요소를 사전에 막는다는 성주군의 방침은 입지선정 뿐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국비삭감 등으로 사업이 미뤄지거나 중단되었던 사례를 교훈삼아 지방비 부담률을 총 예산의 50%로 잡고 지방비 편성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한 것이다. 또한 전체사업의 목표치와 성과치를 정확히 계산하여 제시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차질도 사전에 예방하였다. 실제로 공사장 진입교량 설치는 예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었으나 확보된 지방비가 있어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계획에 없었던 진입교량의 설치는 단순히 공사 효율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장 진입로에는 하천 내에 흙관(D600mm) 3분을 사용한 간단한 잠수교 형식의 세월교가 있었다. 세월교는 너무 협소하여 농기계 출입이 어려웠고 적은 비에도 물이 넘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다. 이 조차도 2003년 수해복구공사로 설치

| 예산취득현황 |

단위: 천원

공 종	인 가 액	'10년까지	'11년도	'12년이후
합 계	6,214,000	3,400,000	2,200,000	614,000
국 비	3,107,000	1,700,000	1,100,000	307,000
지방비	3,107,000	1,700,000	1,100,000	307,000

된 것이었으나 집중호우 시에는 나무나 이물질 등이 흙관을 막아 하천이 범람하는 등 수해 위험이 많았다. 이번 세월교의 개체로 중앙비의 공사현장 진입이 쉬워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개선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까지 본 셈이다. 또 이 교량 외에는 저수지로 향하는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공사 완공이후에도 쓸모가 확실한 시설은 진입교량만이 아니다.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현장사무소 시설도 향후 펜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소는 공사가 끝나면 폐기하거나 폐건물로 남게 되어 그 자체가 자연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때문에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성주군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저수지가 완공되면 형성될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펜션을 짓는데 지주와 협의하였고 현재 지어진 현장사무소도 이와 더불어 재활용될 예정이다. 성주군만의 친환경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군의 친환경 재활용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드칩 및 하우스 사진

버릴 것이 없다, 우드칩 생산

성주군의 이번 용수개발사업은 말로만 외치는 친환경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응용되는 친환경 모범사례라 칭할 만하다. 먼저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거듭났다. 저수지 계획지점이 준산간지역에 속해 있어 폐목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설계당시부터 이 폐목 활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름 아닌 우드칩 생산이다. 당연한 공사 부산물로 인식되어

오던 폐목이 성주군에서는 친환경 퇴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참외 농가는 폐목이 나오면 줄을 서서 가져갈 정도로 우드칩을 선호했다. 거름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은 역시 자연에서 온 것이다. 축분 등과 섞어 친환경 퇴비로 거듭난 우드칩은 참외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사업처는 사업처대로 임목폐기에 대한 고민을 덜었고 농가는 농가대로 양질의 유기농 비료를 얻었으니 역시 일거양득의 효과였다.

토취장 활용도 효율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1토취장은 현재 현장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향후 펜션지대로 활용할 계획이며 상류부는 산삼을 짓거나 다른 농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반을 정리해 주었다. 2토취장 역시 제단성토용으로 흙을 사용하고 그 장소는 전원주택지로 조성 중에 있다. 이처럼 토취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를 통해 의견을 맞춰나갔다. 필요한 흙과 자갈은 저수지 개발에 사용하고 흙을 내간 공간은 소유자들이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반을 다져주는 등 상호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저수량 확보를 위해 파냈던 폐목, 폐사토 등도 동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 주었다. 그랬더니 설계보다 저수량이 더 확보되는 효과가 있었다. ‘버릴 것이 없는 공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이렇게 공사 단계 단계마다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톡톡히 나오는 경우는 성주군이 유일할 것이다.

친환경 위에 친인간

용암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삼화건설의 신교정 현장소장은 “이번 사업은 친환경보다는 친인간적인 공사”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친인간적 공사’란 어떤 것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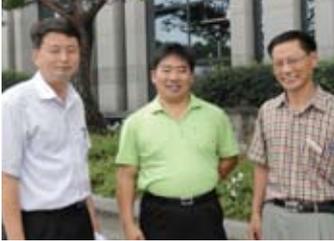
이번 공사는 저수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수로를 만들다 보면 논밭은 물론 산도 지나게 된다. 설계대로 따라가다 보면 산을 치고 묘까지 날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무연고 묘다.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겉으로 보기에 조그만 언덕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 무연고 묘이다. 후손들조차 그 산 그 자리에 묘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다. 이번 수로 공사를 통해 많은 무연고 묘들이 후손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공사 도중인지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한 동 한 동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두 사진을 찍어서 고시하고 후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안 나타나는 경우는 절차에 의해 따로 처리해 주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도리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은 진정한 ‘친인간적’ 공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무연고 묘가 나오면 현장에서 곧바로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장님이 동네 어르신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님은 늘 곧바로 현장에 오셨다. 이장님 덕분에 쉽게 찾은 무연고 묘들도 많다. 현장에서 이렇게 조상까지 찾아주니 동네 사람들도 공사에 도움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방성토에 들어가는 점토를 구해야 할 때도 이장님 이하 동네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점토를 구할 수 있었다. 점토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원활한 공사와 공사비 저감에 기여하는 것이다. 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점토를 채취할 수 없고 멀리까지 가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공사의 또 다른 지원군이었던 것이다.

지역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저것 터무니없는 요구와 민원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토취장



한국농어촌공사 도영욱, 현장소장 신교정,
성주군 건설안전과 계장 이호원

주민들과 융화되지 못하면 예상치 않던 문제와 부딪치는 경우가 다 반사다. 그러나 성주군은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제로’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친인간’ 공사의 또 다른 측면이다. 성주군과 사업처는 사업관련 민원인이 군청에 오면 바로 현장으로 갔다.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저수지로 인해 산소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던 주민의 이야기도 현장에서 듣고 해결했다. 사업처는 우회길을 내주겠다고 했고 주민은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다면 된다고 양보했다. 현장에서 얘기하다보면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하게 된다고 한다. 개인의 이득을 위한 공사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사임을 양쪽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손이 마주치니 박수소리가 제대로 났다.

사업 완료 후 시너지 효과까지

공사를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버려진 밭을 다시 일구거나 과수원 등 새로운 농업에 도전하려는 농가들도 생겨났다. 참외농사가 잘 안 되어 포기하고 있었던 농가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토지이용률이 얼마나 증가할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농업생산력 증가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현재 용암지구 내 농산물은 일반벼, 시설참외 등 814.8톤을 생산하여 561,749천원(ha당 14,044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번 수리시설이 완비되면 농지이용률 증가로 생산량이 1,088.88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은 825,133천원(ha당 18,753)으로 전보다 263,384천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혜면적은 총 44ha로 보고 있으며 저수지 하류의 홍수에 따른 가옥과 농경지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

치지 않고 저수지 완공 후 형성될 수변공간과 이설도로를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운 지역발전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가뭄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1차 목표였지만 성주군의 이번 사업은 1차 목표달성은 물론 2차 3차의 시너지 효과까지 달성한 모범사례이다. 성주군과 사업처, 주민들 모두의 아이디어와 협력이 친환경·친인간 개발사업의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쿵쿵 쏟아지는 새로운 물 에너지의 기운을 받아 용암지구는 물론 성주군 전체가 싱싱하고 시원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본다.